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음 4월 5일) 제22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즉각 사퇴 민관위 구성을”

시민단체 “소수 특정주민 이익 위한 수단 악용돼”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등 불투명 업체 선정 의혹 제기

전주시 삼전동 소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해촉하고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주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 위원장을 비롯 소수 특정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곳 주민숙원사업 또한 투명하지 않은 업체 선정 등으로 주민들간 불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시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금전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주민지원금과 관련 폐기물 반입저지 등 마찰로 불만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말썽의 근원인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지원 협의체가 지난 2017년 이곳 주민들에게 출연금(24억)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17차례에 걸쳐 출연금을 나눠 지급하고 반입수수료 또한 미지급된 가구가 있어 이들과 협의체 간 소송이 계속중인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독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비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초과 사용동의서를 받아 사익을 위해 사용돼 왔고 위원장 가족이 분양한 빌라를 계약할 때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위법행위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주시에 협의체 위원장 해촉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시민단체들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위원장의 측근들로 채워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해촉되거나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횡령 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단체와 협의체간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 협의체는 “우리는

전주시와 협약에 의해 주민지원금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와도 잘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감내라 배나라 하는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여러가지 의혹을 들어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송효철 기자



어버이날 유공자들과 함께

전주시는 8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각급 단체장, 전주지역 어르신,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어버이날 유공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임대료 30%만...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정도만 받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대학교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24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매입임

대주택 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와 도배 등 새 단장을 마친 뒤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 추진돼온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지자체에 배정된 것은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

주택도시보증금의 지원을 받아 총 24호의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지어진 지 15년 이내인 전주지역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사업목적에 맞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 등 24호 매입 전주시, 만 19~39세 대상에

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의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전주시 주거복지과에 방문해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매입 목표 물량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신청을 받음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社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본선 오후 2시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납문 광장(풍납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장애인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시,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향토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 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 ▲ 접수기간: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번지(5층), 063-231-6669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2층), 063-286-6678
FAX: 063-287-6676, E-mail: yangokkim@hanmail.net



당정청, 추경·민생입법 처리 머리 맞댄다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경제·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6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미세먼지·강원 산불 등 재난대응과 선제적 경

기대응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회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관련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장기 표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논의한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